

제주국제자유도시와 영어공용화 실현방안

김 원 보 · 변 길 자
(제주대학교)

Kim, Won-bo·Byun Gil-ja. 2005. Strategies to Make English Another Common Language In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Language Teaching and Research* 2(1), 49-71.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uggest what should be done in Jeju to expand the use of English and make English another common language in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To do so, it is recommended that Jeju need to enhance the efficiency of English education provided in various ways, offer consistent and diverse English education programs for Jeju ordinary people and strengthen school English education to enhance the competitiveness of school English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1. 영어공용화에 대한 논란

영어공용화의 문제는 찬반 양측이 민족주체성 논리와 경제논리에 입각해서 치열한 대립양상을 보여 왔다. 전자는 영어공용화가 가져올 민족 정체성의 파괴 등 역기능을 우려하는 소극적 입장인 반면, 후자는 세계화의 대세 속에 인적자원 밖에 없는 우리가 세계무대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길은 약간의 부작용이 따르더라도 영어공용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적극적 입장이다. 이런 사실은 <표 1>에서 확인 할 수 있다.(박영준 외, 2004: 4)

먼저 영어를 공용화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영어공용화 반대론자들은 대략 다음 세가지 점을 우려하고 있다.

첫째는 국어의 순수성 파괴 및 영어로의 예속화를 걱정하여, 영어공용화가 진행되면 국어에 무분별한 외래어의 수용으로 인한 국어의 정체성이 파괴되고, 더 나아가 영어가 국어보다 상위어의 개념으로 자리잡을 것이라라고 주장한다. 두번째는 민족성 및 문화의 정체성의 상실문제로 영어교육이 강화되고 영어로 교육 받다보면 민족성과 문화, 전통 따위가 파괴되어 결국 “나는 누구인가”라는 의문에 봉착하여 민족과 문화의 정체성의 상실에 빠진다는 것이다. 세번째는 계층가 외화간조선문제로 영어는 능력이고 많이 배우 사람의 언어

<표 1> 영어공용화에 대한 찬반 논쟁비교

찬 성	반 대
국제어 시대 영어는 세계공용어로서의 지위가 확고함. 개인이나 국가의 경쟁력제고를 위한 영어능력은 필수.	영어공용화는 민족정체성과 주체성을 상실케함.
미래사회는 영어와 민족어가 공존하는 이중언어사회.	모국어의 위축으로 인한 한국문화의 말살.
영어공용화 이후라도 민족어는 사멸하지 않고 전문가들의 연구로 명맥이 이어짐.	영어능력중심의 새로운 사회계층구조 형성, 사회분열과 혼란이 더욱 조장됨.
한 언어에 도구 이상의 가치를 부여하지 말 것. 지나친 우상화는 위험.	영어능력과 직업의 전문성 분화는 상관적임. 모든 국민이 동일한 영어능력의 스트레스를 강요받을 필요없음.
과학문명의 급격한 발전속도에 비하면 통역과 번역은 한계가 있음.	영어가 곧 국제 경쟁력이라는 의식은 재고되어야함. 현재 영어공용화 국가들의 경우는 실증적인 예
영어공용화를 통해 한국문화는 오히려 국제화가 될 것임	영어교육개선의 필요성과 영어공용화를 동일시 해서는 안됨
영어공용화의 최대 수혜자는 우리 후손들	

확산되어 계층간 위화감과 갈등조장의 원인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반면에 영어를 공용화해야 한다는 찬성론자들은 국제화 개방화를 지향하는 세계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부작용을 감수하더라도 영어공용화를 실시해야한다는 적극적인 주장을 한다. 첫째는 국제경쟁력 강화 및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영어공용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두 번째는 세계화 국제화 시대에 배타적 민족주의는 열등의식의 발로라고 주장하면서, 민족문화는 결코 불변의 고정태가 아니고 늘 바뀌고 변화하고 진화함으로써 변화하는 세계화의 추세에 배타적 민족주의는 더 이상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영어공용화에 대한 논의는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우리 민족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도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어서 현재의 국제상황과 우리가 처한 위치를 고려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통찰력에 근거한 자세하고도 구체적인 논의를 필요로 한다. 영어공용화에 대한 찬반입장은 각자 나름대로 진지한 성찰을 하고 있지만 일반적 관점에서 자신들의 입장만을 옹호하다보니 편견과 이해부족의 문제점을 보여주면서 양측이 절대로 하나의 절충적인 결론에 이르

대적 추세와는 다소 동떨어진 민족적인 감성이나 국수주의로 잘못 비춰질 수 있는 주장을 함으로써 시대적 당위성이나 합리성측면에서 문제점을 안고 있다. 반면에 영어공용화 찬성론자들은 우리민족의 미래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시대적 추이를 반영한 이유를 제시하고 있지만 국어의 위상변화문제를 경시함으로써 민족적인 정체성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으며, 추상적인 미래를 너무 강조함으로써 실제적인 현실을 외면한 발상이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2. 영어공용화의 득과 실

영어공용화에 대한 찬반 논란은 좀처럼 합의점을 찾기가 어려우리만큼 치열한 논쟁을 계속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제주국제자유도시를 비롯한 몇몇 경제특구에서 영어공용화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이렇게 첨예한 대립을 보이는 영어공용화가 정부의 의지대로 실현되면 어떤 득과 실이 있는지를 영어능력, 모국어 기능, 문화 정체성, 국가경쟁력, 사회통합의 측면에서 영어공용화 국가의 사례와 찬반론자들의 의견을 통하여 냉정하게 되짚어보자.

2.1. 영어능력

영어공용화의 이점중 하나는 영어실력의 향상이다. 현재 한국인의 영어실력 향상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이 일상생활에서 영어를 구사할 기회가 적기 때문이라는 분석(김원보, 2004)은 영어공용화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찬성론자들이 내세우는 중요한 근거이기도 하다. 이런 사실은 다음과 같이 인도나 필리핀과 같은 영어공용화 국가와 한국, 중국, 일본과 같은 비공용화국가 사이

<표 2> 각국 토플점수비교

국가명	토플평균점수(200년)
한국	533
중국	559
일본	504
대만	515
인도	581
필리핀	566

의 토플점수를 비교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다(박영준 외, 2004: 161).

토플성적은 677점 만점에 영어 비공용화 국가인 한국이 533점, 중국과 일본이 각각 559와 504점인 반면 영어공용화국가인 인도와 필리핀은 각각 581점과 566점이다. 나라별로 응시자 수나 응시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토플 평균점수만으로 이들 국가의 전체 영어실력을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러나 영어 비공용화 국가의 토플 평균이 인도나 필리핀과 같은 영어공용화 국가의 토플평균보다 낮다는 것은 영어공용화국가의 영어실력이 비공용화국가보다 높다고 말할 수 있는 일단의 증거가 되며, 이것은 또한 비공용화국가가 영어를 공용화하면 영어실력이 공용화국가처럼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될 것이다.

이처럼 영어공용화가 한국인의 영어실력 향상측면에는 기여할 것이 분명하므로 영어능력 측면에서는 얻는 게 많을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이 영어실력향상을 통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려고 한다는 관점에서 영어공용화를 추진한다면 한국어를 대체하면서 동시에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고급영어를 구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되어야 영어공용화의 취지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2.2. 모국어 기능

영어공용화 반대론자들이 가장 염려하는 부분 중 하나로 영어가 공용화되면 모국어인 한국어는 그 기능과 역할이 가면 갈수록 쇠퇴하여 결국에는 영어에 제1언어의 위치를 내주고 말 것이라고 걱정한다. 반면 찬성론자들은 한국의 경우 모국어인 한국어는 사회 모든 분야의 주류언어로 비록 영어공용화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영어는 필요한 사람들에 의해 제한된 분야에서만 사용될 것이므로 한국어의 위상추락을 염려하는 것은 기우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영어공용화가 이루어지면 한국어는 지금과는 다른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영어공용화 국가의 경우를 보면 홍콩에서의 중국어, 필리핀에서의 타갈로그어, 싱가포르에서의 말레이어는 일상생활 속에서 폭넓게 사용되고 있으며, 학교에서도 모국어교육을 의무적으로 진행하고 있어서 모국어는 그 지위를 확고히 지키고 있다. 그러나 싱가포르와 필리핀에서 각 민족의 모국어는 새화

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각 민족의 모국어는 전문분야의 일을 하는 데 기여할 수 없는 언어가 되어가는 상황이다.

이런 사실은 영어공용화 반대론자들이 우려하는 상황이다. 즉 영어는 경제활동어의 기능을 수행하여 가진 자들이 구사하는 언어가 되고, 한국어는 일상생활 언어의 기능을 수행하여 못가진 자들의 언어가 되어서 결국에는 영어공용화가 한국어의 추락한 위상으로 인해서 계층간 위화감을 조성하고 모국어의 기능이 현저히 약화될 것이다. 이런 사실은 김원보(2004: 25)의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지적된 것으로 모국어 기능적 측면에서는 영어공용화로 인해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게 많은 것은 분명하다. 그러므로 영어공용화를 시행하려면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한국어의 위상강화와 학교에서의 국어교육 강화방안도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2.3. 문화적 다양성과 정체성

한국은 단일민족국가이고 한국어는 한국문화를 형성하는 중심축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인들은 외국인과 외국의 문화에 대해 배타적인 태도를 견지해 왔으며, 국수주의적이라고 할 정도로 자신의 문화에 대한 순수성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세계화 개방화 시대에 문화에 대한 국수적이고 배타적인 태도는 우리의 발전은 물론 세계화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영어공용화는 지금과 같은 지구촌시대에 인종 중심적 문화로부터 탈피하여 다원주의적 문화정체성을 수립하는 계기가 될 수가 있다. 이처럼 영어공용화를 통하여 우리 문화의 폭을 넓히고 다양성을 지향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분명 득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영어공용화로 인한 외국문화의 급격한 수용은 우리 문화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더 나아가 영어의 사용증가와 맞물려서 우리문화보다도 외국문화를 더 우월한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까지도 생겨날 수 있다는 우려는 분명 경계해야 할 것이다. 한국과 같이 단일민족국가이면서 한국어로 문화적 전통을 확립하고 있는 나라에서 영어로 문화적 전통을 계승해나간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므로 한국에서 영어공용화가 실시되면 한국인이 겪을 문화적 정체성의 혼란은 다민족국가이면서 영어권 식민지 국가였던 싱가포르나 필리핀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것이다.

을 할지 모르지만 한국인의 문화적 정체성에는 혼란을 일으켜서 역기능을 할 것이다. 그 순기능과 역기능 사이의 정도차이를 비교해보면 역기능 쪽이 좀더 커서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것이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2.4. 국가경쟁력

영어공용화와 국가 경쟁력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영어공용화 찬반론자들 사이에 논쟁이 뜨겁다. 영어공용어 반대론자들은 영어를 모국어가 아닌 공용어로 채택하고 있는 47개국 중에서 우리보다 경제력이 높은 국가는 뉴질랜드, 싱가포르, 아일랜드 등 3개 정도의 국가만이 경제력에서 우리보다 앞서고, 나머지 국가의 경우는 하위권에 속한다는 사실은 영어공용화가 국가 경쟁력의 향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국가간 무역전쟁은 치열하고, 자연자원은 부족하고, 우리의 생존과 경제발전은 외국과의 교역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풍부한 인적자원을 전문 분야지식은 물론 국제시장에서 무리없이 의사소통할 수 있는 국제통용어인 영어를 능숙능란하게 구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분명 국가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된다고 공용화 찬성론자들은 주장한다.

물론 영어공용화를 통해서 국가의 경쟁력이 향상되었다는 증거를 찾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세계무역 및 정보 시장에서 영어의 위치 및 국제사회에서 영어권국의 위상을 고려하고, 현재 한국인의 영어실력에 대한 한탄, 이를테면 대학까지 10년을 영어공부하고도 외국인과 제대로 의사소통도 하지 못한다라는 자조섞인 비난까지 감안하면 영어공용화는 한국인의 영어실력향상에 기여할 것이고, 이는 국제사회에서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2.5. 사회통합

다민족 다언어 국가에서는 공용어인 영어가 민족적 차별없이 국가 및 사회적 통합을 이루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예를 들면 영어공용화 국가인 말레이시아의 경우 다수민족인 말레이계 언어에 우월적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여러 가지 사회분란을 일으키고 있으나 필리핀의 경우는 영어에 우월적 지위를 부여

가에서 영어공용화는 사회통합에 일정하게 기여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한국은 한국어를 유일공용어로 하는 단일민족국가이다. 필리핀이나 말레이시아와 같은 다민족 다언어 국가 입장에서 보면 한국은 복잡한 언어정책이 필요없다는 점에서는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에서의 영어공용화의 실행은 급진적 정책으로 한국사회에 혼란과 분열을 야기시킬 수도 있는 것으로 사회통합적 측면에서 보면 역기능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

3. 제주에서 영어교육의 문제점

제주국제자유도시가 추진되면서 학교현장에서는 물론 제주도민들 사이에서도 영어의 중요성이 더욱 더 부각됨에 따라 제주도 및 여러 기관에 의해서 다양한 영어교육이 실시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세계적인 국제자유도시로의 발전을 모색하면서도 현재 제주에서의 영어교육 및 사용 환경은 다른 지방의 그것과 별로 다를 것이 없어 보인다. 즉 아직은 국제자유도시인 제주에서의 영어교육이 다른 지역의 영어교육과 큰 차별성을 가지거나 특별한 무엇이 별로 없으며 오히려 문제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다.

제주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영어교육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드러난 문제점들로 다음 세 가지를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제주도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수준별·직종별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영어교육프로그램이 없어서 각 기관마다 영어교육프로그램이 중복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문제가 있다. 두 번째는 각 기관에서 영어교육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지만 체계성·연관성·효율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일반도민을 대상으로 한 영어교육프로그램인 경우 수강생부족 및 예산문제로 지속적인 연계프로그램 없이 교육이 일회성으로 끝나버려 일반도민들에게 일관성 있게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영어교육을 제공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세 번째는 제주국제자유도시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 하에서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영어교육을 하면서도 교재나 수업보조자료가 제주의 실정에 맞는 우리 것이 아니라는 문제가 있다.

다음은 학교영어교육의 문제점으로, 제주만의 특별한 영어교육이 학교현장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다음에 지적되는 문제점은 제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에 적용되는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른 원어민 교사와 한국인 교사의 적절한 배치 및 활용이 되지 않고, 학생들의 수준에 관계없이 원어민교사를 배치하는 경향이 있다. 두 번째는 학교영어교육은 주당수업시수, 한국인교사의 재교육, 그리고 영어교과과정측면에서 국제자유도시 출범전이나 그 이후나 특별히 달라진 게 없을 뿐만 아니라 여타 지역에서의 학교영어교육과 별로 차별성이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외에도 영어상용구역의 활성화, 교수 및 평가방법개선, 영어교육시설의 확충 등은 학교 영어교육하면 으레 지적되는 문제점들로 이런 문제점의 해결은 “돈”과 직결된 것일 뿐만 아니라 대학입시 영어와도 서로 얽히고 설킨 문제들로 어느 하나의 해결만으로 풀리지 않는 복잡한 문제들이다.

마지막으로 사실 영어교육기관과 관련된 것으로, 지나친 사교육 열풍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내면서도 정작 많은 학생들이 학원을 다니고 있으며 엄연히 영어교육현실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학원영어 교육의 지원에 대해서는 인색한 편이다. 원어민교사의 수나 수업규모 등에서 학원 영어교육도 학교 영어교육에 비해 강점을 보이는 부분이 있으며, 이런 이유로 더욱 더 많은 학생이 학원영어교육을 받는 추세로 학원영어 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사교육인 학원영어교육도 엄연히 교육의 일부임에도 불구하고 학원영어교육은 교육의 주변으로 간주되어 지원과 관리감독의 변두리로 남아 있다는 문제가 있다.

4. 제주국제자유도시와 영어공용화 방안

영어가 세계적인 공용어가 되어가고 있는 국제적인 환경을 고려하여 제주를 경쟁력 있는 국제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정부는 제주에서의 영어공용화를 추진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제주에서의 영어공용화 방안은 찬반의견이 갈린 채 사회분열양상을 보이고 있다. 여기서는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제주에서 영어공용화의 당위성, 실현전략 및 실천방안 등에 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4.1. 영어공용화의 당위성

이 치열한 대결양상을 띄어 왔다. 그러나 영어공용화에 대한 이런 말 받아치기식 소모적인 논쟁은 영어공용화를 정책적으로 결정한 현재의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상황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제주라고 하는 단어 앞에 “국제자유”라고 하는 수식어를 붙이기로 결정했으면 영어공용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조건이라고 생각된다. 만일 아무런 수식어를 동반하지 않은 “제주”라면 영어공용화의 추진없이 학교영어교육의 내실화만을 통하여 현 상황에 대처하는 데 적극 동의한다. 그러나 제주라는 단어 앞에 급격한 제도적 정책적 변화를 시사하는 “국제자유”라고 하는 수식어를 붙이고 제주의 발전전략을 지금과는 다른 방식으로 수용하여 급격하게 변화하는 시대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영어공용화는 필수적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영어공용화 방법 및 전략을 수립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상가능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형식적이고 명분적인 대응 방안보다는 경제적 실용적 관점에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는 제주의 실질적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런 사실은 김원보(2004)의 설문조사 결과에도 잘 나타나 있다.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가 된다면 영어의 중요성은 어느 정도가 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아주 중요할 것이다(64%), 조금 중요할 것이다(27%), 지금과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9%)의 순서로 나타나서 영어가 중요할 것이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대략 91% 였다. 그리고 영어 상용화 문제에 대해서는 찬성이 55%, 반대가 45%로 나타났으며, 영어상용화 계획에 찬성한다면, 찬성하는 이유로는 영어가 제주 국제자유도시의 성패를 가름할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42%), 영어가 세계 공용어이기 때문(42%), 후세 영어교육에 도움이 되기 때문(11%),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5%)의 순서로 나타났다.

외국의 자본과 투자를 유치하여 제주를 국제적인 관광 금융 물류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하여 7대 선도프로젝트를 비롯한 투자유치 사업이 제주도를 비롯한 개발주체들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제주도가 야심차게 추진해온 국제자유도시 추진사업은 제주가 가진 지역적 경제적 정치적 역량의 부족 및 지역안배를 고려한 지원이라는 정부의 암묵적 정책에 의해서 국내의 여타 경제특구나 자유무역지구와의 경쟁에서 우월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부진을 면치 못해 왔다. 또한 공공기업의 지방이전계획에서도 제주는 전인구의 1% 밖에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정치의 장벽에 가로막혀 원하는 공기업 하나 제주로 유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개발방향과 목표 및

그러면 전체인구의 1%밖에 차지하지 못하는 제주가 인천·송도 와 같은 경제특구나 또는 부산이나 광양과 같은 자유무역도시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여 국내외의 많은 투자를 유치하면서 성공적인 국제자유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방안은 없는 것일까? 제주의 영어경쟁력 강화를 통한 점진적인 영어공용화가 그 대답이 될 것이다.¹⁾ 영어경쟁력 확보 및 점진적 영어공용화를 무기로 국내외의 투자유치를 통하여 국제자유도시의 발전을 모색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영어공용화 반대론자들이 내세우는 명분은 현재의 영어의 위상을 고려하면 영어공용화를 뒤로 미루거나 하지 않는다 하여 사라질 문제가 아니다. 이를테면 영어는 인터넷을 비롯한 거의 모든 분야에서 세계의 공용어처럼 통용되고 있어서 많은 학생과 도민들이 국어가 아니라 영어능력의 향상에 많은 시간과 돈을 들이면서 과외를 받고 있으며, 이런 상황은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영어가 국어보다 상위의 언어처럼 여겨지게 만들고 있다. 더군다나 국어에 무분별한 외래어의 사용 및 정체성을 의심하게 하는 글 등은 이전에도 문제가 지적되었던 것으로 영어공용화를 추진하지 않은 현 상황에서도 이미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영어공용화의 추진과 더불어 국어교육을 더욱 더 강화하면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더군다나 영어공교육에 대한 불만으로 해외유학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엄청난 사교육비가 지출되고 있어서 이제부터라도 같은 시행착오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영어공용화가 가져올 단기적 역기능적 측면보다는 원시안적인 장기적 차원에서 순기능적 측면들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영어공용화를 통하여 공교육을 강화함은 물론 경제를 비롯한 여러 분야의 제반인프라를 튼튼하게 구축할 수

1) 윤성식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장은 2005년 5월 19일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구상안과 관련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도를 홍콩과 싱가포르를 능가하는 이상적인 분권자치 모델로 발전시켜 대한민국을 선진국의 반열에 올려 놓으려는 야심찬 계획"이라면서 "제주도를 규제자유지역, 이상적 자유시장 경제지역, 글로벌 스탠더드가 적용되는 지역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혁신위는 이와 관련, 제주도를 홍콩이나 싱가포르처럼 명실상부한 국제자유도시로 육성해 나가기 위해 일명 '홍가포르 프로젝트'를 추진, 제주도를 '노 비자', '면세', '무규제', '영어통용' 지역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유학가는 학생이 작년에만 40만명이고 그 경비가 8조원에 달하는 '교육역조'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국제적 교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선택권을 최대한 부여해 제주도를 교육산업의 메카로 키워 나가겠다고 정부혁신위는 설명했다. 윤성식 정부혁신위 위원장은 "제주도를 교육 메카로 키워 국내의 조기유학 수요를 충족하고 일본, 중국 등 아시아의 해외유학생을 유치하겠다는 구상"이라고 설명하고 "영어

있다는 긍정적 사고 하에서 영어공용화 정책을 수립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다. 영어공용화 시행의 역기능에 따른 부작용을 지나치게 걱정하여 영어공용화의 실시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영어공용화의 효과는 그 만큼 희석될 수밖에 없다. 정부의 발표에 따라 제주국제자유도시가 영어공용화를 전제로 홍콩이나 싱가포르를 뛰어 넘는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영어공용화의 빠른 정착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한다. 그러므로 정부에 의한 제주에서의 영어공용화의 추진 발표는 세계화 개방화 국제화의 대세 속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가 성공적으로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부작용을 최소화 하면서 실현 가능한 외국어 정책들을 적극적·능동적으로 수립·시행해야 될 책무가 제주도 에 맡겨졌다는 의미이다.

4.2. 실천전략

제주가 사람과 상품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국제자유도시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영어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 하에 도민들의 영어구사 능력을 시급히 국제적 수준으로 배양해야만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학교영어교육의 강화와 다양한 사회 영어교육을 통하여 영어를 사용하여 의사소통이 가능한 영어상용 인구의 수를 늘려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제주도 어디에서든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친영어적 환경을 조성하여 영어가 자연스럽게 제도적으로 공용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선 단기적으로 영어상용 인구의 저변을 점차적으로 확대시켜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영어교육의 강화는 물론 도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영어에 노출되도록 온라인과 오프라인상의 다양한 유형의 영어교육이 도민들에게 제공되어야만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영어교육의 양적 질적 수준의 향상은 물론 교육 효과의 극대화를 통하여 영어에 대한 친밀감을 조성하고 더 나아가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영어상용 인구의 저변확대를 이루어가게 되는 것이다.

장기적 목표는 친영어 환경 조성을 통한 영어공용화이다. 제주의 어느 곳을 가도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필요한 정보를 영어로 전달하고 얻는데 불편함이 없는 그런 언어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영어로만 의사소통되는 영어마을을 조성하고 점차적으로 그것을 확대해야 하며, 더 나아가 영어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고 또한 문화 관광, 투자 및 제주관련

친영어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업들을 우선순위에 따라 효율적으로 차근차근 진행해야 한다.

여기서 주장하는 것은 영어공용화를 어느 날 갑자기 선언해서 시작하자는 것이 아니다. 외국어의 특성상 물론 그렇게 되지도 않는다. 여기서 주장하는 영어공용화는 영어공교육의 강화와 제주도민의 영어경쟁력을 강화하여 영어의 사용을 확대하면서 예측가능한 부작용은 최소화 하면서 영어사용을 보편화해 나가므로써 장기적 측면에서 점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로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영어공용화는 선언만으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영어공용화 실현을 위한 기본 인프라 구축 및 영어경쟁력 강화 등과 같은 사전 준비에 많은 노력과 시간이 들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영어공용화는 궁극적으로 영어 공교육의 체질강화 방식으로 영어 공교육의 현장을 통해서 이루어 져야 하는 데 그 영어공교육의 경쟁력 강화 역시 많은 시간과 돈과 노력을 필요로 하는 과정이다. 세 번째는 점진적 영어공용어화를 시행함으로써 염려되는 부작용에 대비하여 그 여파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4.3. 실천방안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인 건설을 위한 필수조건 중 하나는 영어공용화를 통한 영어인프라를 가능한 한 빨리 구축함으로써 외국인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다. 그래야만 동북아시아에서 주변의 여러 선, 후발의 국제자유도시들과 경쟁력을 확보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여기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영어공용화를 위한 실천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일반도민을 위한 영어공용화 방안과 학교영어교육을 통한 영어공용화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4.3.1. 도민을 위한 영어공용화 방안

영어공용화가 수십 년 후를 내다보는 정책이라고 할지라도 점차로 증가하는 영어의 필요성과 영어를 익히고자 하는 도민의 욕구, 그리고 영어공용화는 점진적으로 서서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상황을 감안하면 영어공용화과정에서 현재의 도민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런 측면에서 여기서는 제주도민을

가. 가칭 “영어개발원” 설립

영어공용화를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영어 전문가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영어공용화를 무리없이 조기에 정착시킬 것인지, 그리고 제주도민을 위한 어떤 영어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한지, 그리고 필요한 영어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은 물론 영어공용화 과정에 제주도민이 무리없이 적응하도록 도와줄 영어공용화를 위한 전문기관이 반드시 필요하다. 사실 영어공용화는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성패를 좌우할 중요하고도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이다. 그럼에도 이런 중요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전문기관 하나 없다는 것은 문제이다. 사실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는 제주에서 영어 공용화 계획에 대한 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발과 반대가 있는 것이 사실이며, 그 이유도 계층에 따라 다양하다. 이처럼 영어공용화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내는 일부 제주도민들의 반대주장을 수용하여 그들이 우려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영어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제주에서 현재의 영어사용의 문제점과 앞으로 변화하게 될 영어환경에 대한 제주도민의 의식과 태도 및 문제점 등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조사 연구를 통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과 친 영어 환경의 조성에 따른 급속한 사회 언어적 변화에 대한 도민의 반응과 불안에 대한 개선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일을 위해 영어개발원 설립은 필수적이다.

나. 학습형 영어 마을 운영

1년 24시간 영어만 사용하는 학습형 영어 마을을 설치 운영하여 학생, 교사 및 도민들로 하여금 일정기간 하거나 수시로 방문하여 영어만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영어 능력의 향상은 언제든지 영어로 말을 하고 싶으면 가서 영어를 활용할 장소를 제공해줄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이런 영어마을은 영어에 대한 두려움 해소와 함께 외국문화를 체험하도록 하는 기능도 할 것이다. 김원보(2004)에 따르면 학교에서 영어를 오래 배워도 실용영어가 제대로 안되는 이유로 57%가 일상에서 활용기회부족, 20%가 원어민 교사부족, 그리고 13%가 시설부족을 그 이유로 꼽았다. 이런 사실에 비추어 보아 제주도민들은 학교에서 배운 영어를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기회가 적기 때문에 영어구사가 제대로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사실 이 문제는 여러 영어전문가들도 일관되게 지적하는 것으로 이기석(2003), 김재원(2002) 등도 영어마을 운영의 필수적임

다. 맞춤형 영어교육프로그램의 개발

교육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부류의 교육대상자를 염두에 두고 맞춤형 영어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프로그램은 교육 수요자의 수준 및 직종 등을 고려하여 면밀하게 만들어져야 한다.

(1) 공무원을 위한 집중영어교육프로그램 개발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의 최선봉에 서있는 관계기관의 근무자 및 공무원의 영어능력은 단기적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것으로, 그들의 영어구사능력을 단기간에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영어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집중영어식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²⁾

이는 제주국제자유도시의 핵심 구성원의 영어구사능력을 단기간에 효율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교육프로그램은 누가 언제 어디에서 어떤 과목을 하루에 몇 시간 영어교육을 시킬 것인지 뿐만 아니라 초급자를 위한 프로그램은 자체시설에서 운영하고 좀더 집중적인 영어교육이 필요한 중, 고급 수준의 수강자는 대학위탁교육이나 공무원교육원시설 등을 이용하는 방안과 같은 구체적인 실행계획 및 프로그램 운영방안 등에 관해서도 언급되어야 할 것이다.

(2) 서비스업 종사자 및 일반 제주도민을 위한 영어교육프로그램의 개발

(i) 관광, 식당 등 서비스업 종사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초급 및 중급 수준에 맞춰 그들이 종사하는 업무와 관련된 다양한 영어표현을 익힐 수 있도록 듣고 말하기 위주로 구성될 필요가 있다. 그들 업무의 특성 상 하루에 많은 시간을 영어공부에 할애하도록 하는 프로그램보다는 꾸준히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운영가능한 프로그램의 개발에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들을 위한 영어교육이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재선택, 시간배당, 교육장소 및 행정적 지원 등에 대한 신중한 배려가 이루어지도록 영어교육프로그램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ii) 가정주부나 50대 이후의 일반 제주도민을 위한 영어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이는 그들의 영어가 비교적 초보수준이고 영어에 대한 거

2) 실제로 제주도내 공공기관 공무원들 중 일부가 선발되어 위탁교육을 받거나 일정기간동안 공

부반응도 다른 집단에 비해 큰 편이어서 이들을 위한 초급수준의 독자적인 영어교육 프로그램에 따라 교육을 제공하지 않으면 영어능력의 효율적인 향상을 기대할 수가 없으며, 또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그들은 영어의 소외계층으로 남거나 아니면 국제화와 개방화의 주변으로 전락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들을 위한 영어교육 프로그램은 초보자 프로그램에 주안점을 두고 이루어져야 한다.

라. 수준별/직종별 영어 교재개발 사업

제주 관련 영어 교재가 몇 종 개발은 되었으나 제주도민의 영어 구사능력이나 제주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온 게 사실이다. 이런 사실을 고려하여 영어 회화용 교재 및 태일을 도내외의 영어 전문가와 외국인의 면밀한 논의와 연구 후에 제주의 관광·문화·역사·전통 등의 내용을 다루면서 교육현장에서 요긴하게 활용될 수 있는 수준별, 직종별 영어교육 교재 및 태일을 체계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마. 수준별, 직종별, 지역별 도민 외국어 교육

지금까지 시행되어온 관주도의 도민 대상 영어교육은 일시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했었으며 교육대상도 일부 계층에 한정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런 사실을 고려하여 도민 대상 영어교육을 수준별로 다양하게 제공함은 물론 직종별로도 외국어교육을 함께 제공하고 더 나아가 제주도 전지역을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영어교육을 제공하여 하루 빨리 제주의 영어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바. 공무원의 영어 재교육

사실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근무자 및 공무원에 대한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영어교육은 거의 안되는 실정이고 일부 기관에서 독자적인 직장교육을 통하여 또는 영어를 배우고자 하는 개개인에게 외부의 사설교육 기관에서 영어를 수강하는 경우에 영어 학습 보조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영어교육이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이렇게 일시적이고 체계성이 없는 영어교육 방식으로는 단기간에 그들의 영어 능력의 향상을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만을 위한 영어교육과정은 개선하여 체계적으로

사. 영어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관계자들은 업무의 특성상 빠른 시일 내에 영어의 구사능력을 전문가 수준으로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이들을 대상으로 집중영어식 전문 영어교육을 제공함으로써 향후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있어서 해당 전문분야 영어 핵심요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양성해야 한다.

아. 영어교육 전문 웹사이트 구축 및 영어교육 제공

제주실정에 적합한 영어교육 전문 웹사이트를 구축함으로써 영어를 공부하고자 하는 도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시간과 장소의 제약없이 영어를 향시 접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제주도민이 오프라인은 물론 온라인에서도 원하면 언제든 영어에 노출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어교육의 열기를 제주 사회 전체로 확산시켜나아가야 한다.

자. 제주관련 영어 웹사이트 통합 관리 운영

국제화 세계화 시대에 관공서의 제주관련 영어 웹사이트는 한번 만들어지면 좀처럼 쉽게 업데이트 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런 장식용 영어 웹사이트는 제주를 찾고자하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제주의 이미지를 흐리게 할 수 있다. 이런 관공서의 웹사이트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하여 최신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제주를 찾고자하는 외국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체계적으로 관리 유지해야 한다(김재원, 2002: 27-29).

4.3.2. 학교영어교육의 경쟁력 강화와 영어공용화

인천, 부산·진해, 광양 등 3개 경제특구 및 국제자유도시인 제주도에서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방안이 주요 정책 과제로 2005년 제시됐다. 어떤 방식으로 영어공용화를 도입할지는 아직 세부적인 밑그림이 그려져 있지 않지만 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이 지역 초·중등학교에서는 2008년부터 다양한 교과목의 내용을 외국어로 가르치면서 자연스럽게 외국어를 학습하는 '영어 몰입 교육(English Immersion Program)'이 시범 실시된다. 우선적으로 과학과 수학 2개 과목에서 한국인 교사와 원어민 교사가 수업을 담당하고 점진적으로 다른

있는 학교는 사립학교인 서울의 영훈초등학교가 있다.

영훈초등학교의 몰입교육사례(영훈초등학교 홈페이지 게시자료 인용)를 보면 한국인 담임선생님과 원어민 교사 한 분이 부담임으로 한반의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다. 월요일에서 금요일은 한국인 교사, 원어민 교사가 각각 15시간씩을 지도하고 토요일은 한국인 교사가 전체 어린이를 지도하고 있다. 원어민 교사는 단순히 교과를 가르치는데 그치지 않고 학급 부담임으로서 쉬는 시간 점심시간 방과 후 활동 등을 통하여 어린이들의 생활을 돕기 때문에 실제 학습 시간뿐만 아니라 그 외의 시간에도 활발하고 적극적인 언어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영훈초등학교에서는 교육과정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부가 고시하는 시간 보다 주당 1, 2학년은 13시간, 3, 4학년은 9시간 5, 6학년은 6시간을 초과해 지도하고 있다. 원어민 교사가 지도하는 교과목은 학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주로 영어의 기본을 지도하는 영어실습(English Language Art)이 모든 학년에서 10시간 썩, 그 밖의 교과목으로는 어린이들이 학습 내용을 이해하기 쉬운 교과목인 수학, 과학 그리고 통합교육이 배정되었다. 특히 외국에서는 초등학교 과정에는 분리된 교과목 보다는 통합교과과정으로 지도하는 경우가 많아 과학과 사회가 통합된 Theme Study 시간을 배정하여 원어민들이 지도하게 함으로써 교육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실시효과로 첫째 몰입교육을 받고 있는 어린이들의 모국어 성취도가 모국어로만 공부하고 있는 어린이들과 비슷하였다. 둘째 언어 습득 능력은 IQ와는 관련이 없었으며 영어로 말하고 듣는 능력은 영어가 모국어인 사람들과 같은 수준을 보였고, 읽고 쓰는 능력도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사실은 이 학교에서 공부하던 어린이가 국내에 있는 외국인 학교나 해외의 학교로 전학했을 때 거의 대부분의 어린이가 ESL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그 학교의 교과과정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 번째는 교과 내용의 성취도를 볼 때 수학, 과학, 사회 과목에 있어서도 모국어로만 수업을 받는 학생들과 같은 비슷한 실력을 보였다. 수학이나 과학을 두가지 언어로 공부하면서도 교과 학습 성취 면에서 높은 사고를 보였다. 네 번째는 다른 나라의 언어나 문화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리고 몰입교육을 받은 영훈초등학교는 3학년과 6학년의 학생의 경우 언어 면에서 대체로 다음과 같은 능력을 갖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표 4> 영훈초등학교 3학년과 6학년의 언어능력

3학년	6학년
1) 3학년 수준의 영어 동화책을 읽고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2) 자기가 읽은 책의 내용을 요약하는 글, 한 일, 학습의 결과 등을 요약정리 해서 글로 쓸 수 있다. 3) 3학년 교육과정의 내용을 스스로 정리하고 친구들과 간단한 토의가 가능하며 정리된 내용을 발표할 수 있다.	1) 학습 내용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를 읽고 그 내용을 학습에 이용할 수 있다. 2) 의사소통이 자유로워져 정보 교환이 원활해지며 다양한 형태의 글을 쓸 수 있고, 그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영훈초등학교의 사례를 보면 몰입교육이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러나 영훈초등학교와 같이 매주 원어민 교사의 학급당 수업시수를 15시간으로 할 경우 거의 한 학급당 한명씩의 원어민 교사가 필요하므로 사립이 아닌 공립의 경우 현재 학교당 한 명씩의 원어민 교사채용도 안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인 교사 수와 거의 비슷한 수의 원어민을 채용하는 것은 재정적 측면에서 거의 불가능하다. 또한 초등학교인 경우는 교육내용 전달에 필요한 영어가 그렇게 높은 수준을 요구하지 않으며, 또 입시라는 부담이 없어서 영훈초등학교에서와 같은 교육이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경우는 상급학교로의 진학을 생각하고 교육내용의 복잡성, 현재 수학과 과목과목 선생님의 영어능력, 중·고등학생들의 인지능력 등을 고려하면 정부가 추진하는 수학과 과학과목의 몰입식 수업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그러므로 초·중·고교에서의 영어 몰입교육을 위한 충분한 원어민 교사 채용, 한국인 교사에 대한 재교육, 재정확보 등을 염두에 두면 현 상황에서 수학과 과학과목의 영어로 수업한다는 정부의 방안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이런 측면에서 정부의 계획보다는 초·중등 학교에서의 주당 영어수업시수를 획기적으로 늘리고 영어수업을 영어로만 진행하는 것이 영어공용화를 실현시키기 위해 현재로는 훨씬 더 현실적 대안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수학이나 과학과목 선생님에게 담당과목이외에 영어를 공부하게 하는 심리적 부담을 줄 필요도 없이 영어교사를 재교육시키는 편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된다. 수학과 과학과목 선생님의 영어재교육보다는 영어선생님의 영어재교육이 동기부여라는 측면에서 훨씬 높은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서 서서히 7-10년이 지난 후 수학과 과학을 비롯한 다른 과목의 수업도 일정 시간 영어로 하게 하는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몰입교육의 도입을 통한 영어공용어화가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

이처럼 학교교육에 있어 영어수업의 개선 및 경쟁력강화, 그리고 시차를 둔 다른 과목의 영어몰입 수업진행이라고 하는 것이 영어공용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한다면 영어로만 진행해야하는 학교영어교육의 경쟁력 강화방안은 무엇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학교영어교육의 경쟁력 강화는 현행 학교영어 교육의 문제점을 개선하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현행학교영어교육의 문제점은 교육전문가들에 의해 많이 지적되어온 것이며, 교육부도 시설투자를 늘리고 교육과정 개편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하려고 노력해 왔으며,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 개선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지적되어온 문제점들이 모두 다 해결 된 것도 아니며, 문제점이 해결되었다고 생각되는 것도 개선되기는 하였으나 학부모나 학생들의 기대치를 여전히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처럼 현행학교교육의 문제점을 알면서도 만족스러운 정도나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한정된 교육예산과 상급학교 진학문제에 기인하는 것으로, 지적된 모든 문제점을 학부모나 학생들이 만족할 정도로 완벽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교육예산이 필요하고 입시영어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사실에 비추어 보면 학교영어수업의 질 개선을 통한 영어공용화를 달성하기 위해 여기에서 제시될 방안들도 일시에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기 보다는 시급성측면에서 우선순위를 매겨 서서히 해결되기를 기대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영어공용화를 목표로 한 학교영어교육의 경쟁력 강화 방안은 기존에 지적되어온 학교영어교육의 문제점 해결과 직결되는 것으로 다음 몇 가지를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는 영어 상용 환경의 조성이다. 이것은 앞에서도 언급한 것으로 제주도민들은 학교에서 영어를 오래 배워도 실용영어가 제대로 안되는 이유로 일상에서 활용기회부족을 가장 큰 때문으로 꼽았다. 영어가 한국에서 외국어라는 점, 그리고 언어습득에는 반복 연습이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충분히 설득력 있는 제안이다. 이런 사실은 학생들의 실용영어 습득을 위해서는 가능한 많은 영어활용 기회의 장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학교 내 영어상용구역의 설치에 대해서는 지원부족, 원어민 부재, 업무가중 등의 이유로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는 영어선생님들이 많이 있었다.

수의 소규모의 영어도서관을 설치하여 굳이 원어민을 채용할 필요없이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한국인 보조 선생님(예를 들면 통역대학원 졸업생 등)을 고용하여 도서관안에서는 영어만 쓰도록 함으로써 학교에서 배운 영어를 활용할 기회를 제공해 주는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두번째는 영어 선생님 문제이다. 변화된 교육목표와 교육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한국인 영어선생님들에게 재교육 기회를 제공해야한다. 그리고 각 학교가 적어도 한 명의 원어민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교현장에 원어민 교사의 부족은 김원보(2004)의 설문조사 결과에도 잘 나타나는 것으로, 현행 학교영어교육이 시급히 보완해야 할 것으로 47%가 더 많은 원어민 채용, 34%가 듣고 말하기 교육, 그리고 19%가 시설확충을 들었다. 원어민 교사 보충은 설문지 조사결과 가장 많은 응답자들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할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는 교수방법의 개선 및 다양한 평가방식의 도입이다. 이것도 학교영어교육하면 으레 지적되는 내용이지만 학급규모의 축소나 현행 입시제도의 변화 없이는 개선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네 번째로 제주 고유의 보충교재를 개발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다. 제주의 역사문화 전통 자연 등을 다룬 교재를 개발하여 활용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흥미와 관심을 갖고 수업에 참여하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실 밖에서의 활용가능성도 훨씬 높을 것이다.

다섯 번째로 영어교육시설확충과 다양한 학습자료 개발이다. 학교영어교육이 실용영어의 교육이라는 변화된 교육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첨단 어학시설을 하고 학급규모를 줄이기 위해 교실중축을 해야 한다. 그리고 교육당국은 다양한 학습보조 자료를 개발하여 교사와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교육재정과 관련된 것으로 충분한 재정확보가 관건이어서 일시에 해결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여섯 번째로 주당 영어 수업시수를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최근 개정된 제7차 교육과정 하에서도 초·중학생과 고등학교 1학년의 주당 수업 시수는 아직도 충분하지 못하다. 적어도 매일 한 시간 이상 학생들이 영어에 노출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일곱 번째는 도내학교들이 외국학교와 자매결연을 통한 학생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 자매결연학교 간 방학이나 학기 중 교환방문과

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를 제공해줄 것이다.

사실 지금까지 학교현장에서 영어공용화를 실천하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했지만 거의가 “교육재정”과 입시영어와 관련된 것들로 입시영어의 획기적인 개선 및 충분한 재정보조 없이는 불가능한 일들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영어공용화 실현을 위한 교육관련 예산을 획기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모색함은 물론 입시영어의 실용영어 반영방법을 강구해야만 할 것이다. 이런 교육투자 없이 영어공용화는 공염불에 불과하다.

국제어로서 영어는 제주가 세계적인 국제자유도시로 발전해나는데 필수적이다. 제주도민은 변화하는 시대상황에 따라 학교에서도 실용영어교육을 강화해주길 바라고 있다. 그러나 학교영어교육은 그런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질 못하고 있으며, 도민들은 학교영어교육의 공백을 매우기 위해 자녀들을 학원에 보내거나 학교영어교육의 대안으로 비싼 학비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외국인 학교에 보내기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제주가 국제화되고 개방화된다고 하더라도 영어교육의 주체는 학교영어교육이 되어야하며 이런 측면에서 학교영어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영어 공용화가 필수적이다.

5. 결 론

지금까지 제주국제자유도시에서의 영어공용화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영어공용화라는 장기적 목표를 부작용 없이 달성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교육목표를 어떻게 원활하게 달성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이런 점에서 첫째, 국제화 개방화 세계화 시대를 맞이할 제주에서 장기적인 목표인 영어공용화를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것은 영어공교육을 포함한 영어 경쟁력 강화라는 사실을 제주도민들에게 납득시켜야만 한다.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문제는 어떻게 효율적으로 공무원과 국제자유도시 추진의 선봉에서 있는 공무원 등 현장 전문가들의 영어능력을 향상시키고, 일반 도민의 영어 능력을 향상시켜 점진적으로 세계화 시대에 대비하게 하고, 또한 학교영어교육의 활성화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외국 학교와 경쟁하면서 국제화 시대에 걸 맞는 인재를 배출함은 물론 궁극적으로 영어공용화에 핵심역할을 하도록 할 것이냐 하는 문제이다. 이런 사실의 중요성을 제주도민들에게 이해

마나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인지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보수성과 폐쇄성으로 대표되는 섬을 생활터전으로 삼아온 제주도민이 개방화와 국제화라고 하는 시대적 상황에 대하여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그리고 영어공용화에 대하여 어떤 사회 심리적 태도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 전체 도민의 합의와 이익보다는 관계기관이나 특정집단의 필요에 의해서 추진된다는 반론도 있는 상황에서 국제화와 개방화, 그리고 새로운 언어 환경인 영어의 사용에 따른 급속한 사회 언어적 변화에 대하여 소외된 채 그저 불가항력적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도민의 반응과 불안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 다양한 계층과 다양한 수준의 영어 학습자를 위한 종합적인 영어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영어공용화를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영어개발원”같은 썹크탱크가 영어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여 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반드시 설립될 필요가 있다.

네 번째로 학교 영어교육의 문제점을 검토 개선하여 학교 영어교육을 활성화 시킴으로써 학교영어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학교 영어교육이 변화하는 시대적 요구에 발 빠르게 대처하지 못함으로써 비난과 불신을 받아왔으며 이런 이유로 최근에 많은 학생들이 실용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사설교육기관을 찾은 것이 사실이다. 제주국제자유도시라고 하는 미래의 친영어적 환경을 고려하여 학생들에게 실용영어 중심의 생활영어 구사능력의 향상이라고 하는 새로운 교육목표 하에 학교영어교육의 변화와 향상을 모색하여 학교영어교육이 기존의 사설교육기관은 물론 외국인 학교와도 경쟁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영어공용화에 중심축의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원보, 변길자. 2005. “제주국제자유도시와 영어공용어화 방안”. 현대영어교육 6권 1호. 현대영어교육학회
- 김원보. 2004. “제주국제자유도시와 학교영어교육”. 언어교육연구 1권. 외국어교육관
- 김원보. 2003. “제주국제자유도시와 영어 경쟁력 강화 방안.” 언어학 연구 8권 2호. 제주언어학회
- 김재원. 2003. “제주도민 외국어 능력 향상 방안.” 제주도민 외국어 능력 향상 방안 세

- 김종훈. 2002. “제주국제자유도시에서 바람직한 영어정책”, 언어학 연구 7권 2호. 제주 언어학회
- 박영준외 4인. 2004. 「영어공용어화 국가의 말과 삶」. 한국문화사: 서울
- 영훈초등학교 홈페이지
- 이기석. 2003. “제주에서 영어사용 확대방안”, 언어학연구 8권1호. 제주언어학회
- 일간 및 대학신문. 2002-2005. 제주일보, 제민일보, 한라일보, 제대신문 등.
- 제주언어학회. 2002. 제주국제자유도시와 언어정책.
- 제주언어학회, 2003a. “제주국제자유도시에서 외국어 상용화와 국어교육의 강화 및 향후 과제” 학술발표회 자료.
- 제주언어학회. 2003b. 제주도민 외국어 능력 향상 방안 세미나.
- 홍종선. 1987. “의사소통을 위한 영어교육방안.” 「영어교육」. 33:57-78.
- 현완송. 2002. “영어와 국제자유도시”. 언어학연구 7권2호. 제주언어학회
- Dubin, F and E. Olshatn. 1986. *Course Design: Developing Programs and Materials for Language Learning*.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arley, B. and P. Allen, J. Cummins, and M. Swain. 1990. *The Development of Second Language Proficienc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im Won-bo. 2004. “Strategies for Activating School English Education in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The Journal of Studies in Language* 19-3, 389-422.
- Littlewood, W. 1981. *Communicative Language Teaching*.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ong, M. H. and P. A. Porter. 1985. “Group work, interlanguage talk, and second language acquisition.” *TESOL Quarterly* 19: 25-37.
- Nunan, D. 1995. “What is learning-centered communication?” *English Teaching* 50: 3-16.

김원보 · 변길자

제주시 아라 1동 1번지

제주대학교 통역대학원 한영과

690-756

Phone:(064)754-2436

E-mail: kimwonbo@cheju.ac.kr

접수일자: 2005년 8월 10일

게재결정: 2005년 9월 15일